중남미지역학 학사학위논문

여가(餘暇)생활을 통해 본 멕시코 중상류층의 소비문화

지도교수 구 경 모

2014년 11월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비즈니스 연계전공

임 정 원

여가(餘暇)생활을 통해 본 멕시코 중상류층의 소비문화

임정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비즈니스 연계전공)

목 차

Ⅰ. 서론
Ⅱ.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Ⅲ. 중류층의 여가생활과 소비문화
3.1. 술 문화
3.2. 스포츠
3.3. 파티(FIESTA)
3.4. 여행
Ⅳ. 상류층의 여가생활과 소비문화
4.1. 술 문화
4.2. 스포츠
4.3. 파티(FIESTA)
4.4. 여행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Ⅰ. 서 론

멕시코의 GDP는 13,270억$으로 세계 14위 (2013 국제통화기금(IMF) 기준), 1인당 GDP는 11,224$로 세계 62위 (2013 IMF 기준)이며 계층을 소득에 따라 하류층, 중류층, 상류층으로 분류한다. [1] 멕시코 통계청(INEGI)은 일반적으로 납세액과 소득으로 계층을 분류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중류층 가정은 최소 1대 이상의 컴퓨터, 냉장고, 차를 보유하고 있는 가정이며 3개월에 1,466페소(peso)[2]의 이상의 외식비용 지출, 신용카드 보유, 최소 1명 이상의 가정 구성원이 고등교육을 받은 정규직 등으로 분류한다.[3] 또한 상류층은 평균 8개 이상의 방을 포함한 가구, 2대 이상의 자동차 보유, 별장 소유, 대학 또는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 저축 가능여부 등으로 분류한다.[4] 중류층이상부터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수준의 소득으로 생활에 여유가 생기며, 소득의 증가는 여가 활동 역시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여가에 관한 초기 연구는 미국에서 시작되었으며, 여가를 주제로 한 대표적인 연구는 1899년에 출간된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5]의 유한계급론(The Theory of Leisure Class)을 들 수 있다.[6] 여가란 학업과 직장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충전,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을 지칭하며, 이 시간 등을 이용하여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 그 일을 즐기는 과정에서 각종 스트레스를 해소하며 재충전의 기회를 갖는다.[7]

본 연구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중류층과 상류층의 여가활동을 통한 지출 형태와 문화를 나타낸다. 멕시코는 보통 소득으로 계층을 분류하는데, 소득은 계층을 분류하는 지표로써 정확성이 떨어진다. 소득만으로 계층을 분류 하는 것은 문화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오로지 경제적인 측면만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필자는 중·상류층의

---

1) 멕시코 통계청(INEGI)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멕시코의 중산층은 계속적인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현재 총 44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다. 또한 지난 몇 십 년간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으로 건너가 불법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멕시코 이민자들이 2008년 미국이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기가 나빠지자 다시 멕시코로 돌아오면서 중산층을 이루고 있다.

2) 멕시코 화폐단위는 페소(MXN), 대한민국 원(KRW)100원 = 81.51멕시코 페소(MXN) (2014년 11월 기준)

3) 이 통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지출을 기반으로 조사되었다. 그 이유는 멕시코 치안 불안으로 설문참가자들이 실제 소득을 밝히기를 꺼려했기 때문이다. 주 멕시코 대사관(2013).

4) Los Niveles Socioeconómicos y la distribución del gast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2009).

5) 미국의 사회학자이자 사회평론가이다. 그는 산업의 정신과 기업의 정신을 구별하였으며 상층계급의 과시적 소비를 지적하였다. 주요 저서로 《유한계급론(有閑 階級論)》이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6) 네이버 지식백과.

7) 네이버 지식백과.

여가활동에 대한 지출과 그들의 소비문화를 연구하였다.

멕시코의 계층은 상류층, 중류층, 하류층 등으로 분류되지만, 표[8]와 같이 하류층의 소득은 의·식·주 및 기타 비용으로 대부분 지출된다. 하류층(D+E)의 여가지출은 0~6,799×0.021 = 0~142페소로 지출 비용이 매우 작다.[9] 하류층은 여가활동을 영위하기 어렵고, 그 지출규모가 작아 소비를 분석하기 어렵다. 이에 하류층을 제외한 중류층과 상류층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류층과 상류층의 여가활동은 다양하지만, 두 계층 간 비교 연구가 가능하며 주요 소비문화인 여가활동으로써 술 문화, 스포츠, 파티, 여행 등 4가지 분야로 정했다.

Ⅱ. 조사대상 및 연구방법

2013년 7월부터 11개월 동안 멕시코시티 틀랄판(Tlalpan)에 위치한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Universidad Intercontinental, UIC)에서 교환학생으로 공부를 했다.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는 멕시코에서 비싼 등록금으로 손꼽히는 대학이며 재학생 대다수의 가치관, 다양한 생활방식, 거주지, 아버지의 직업, 소득수준, 소비실태를 보았을 때 그들은 상류층이었다. 재학생 중 라파엘 만세라(Rafael Mansera), 메모 오르테가(Memo Ortega), 에두아르도 바리엔토스 에스코베도(Eduardo Barrientos Escobedo)의 가정은 8개 이상의 방을 포함한 건물에 거주, 2대 이상의 차를 보유, 별장을 소유하여 사회조사 연구소(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S.C.)의 멕시코 상류층 기준에 부합한다. 그리고 그들은 상류층 기준에 적합한[10] 대학의 학생이므로 20대 상류층의 여가생활을 3명의 사례를 통해 서술하고자 한다.

라파엘 만세라는 24살로서 메스티소(Mestizo)이며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졸업했다. 틀랄판에 거주하는 그의 집은 아카풀코(Acapulco)에 별장이 있다.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약 15,000페소 수준의 용돈을 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현재 4대의 신형차를 소유하고 있다. 메모 오르테가(Memo Ortega)는 24살로서 메스티소이며

8) 부록 참조.

9) 멕시코의 계층을 상류층(A/B), 중류층(C+,C, D+), 하류층(D, E)으로 분류하였다. Avances AMAI, Distribución de Niveles Socio-económicos en el México Urbano, AMAI.

10) Los Niveles Socioeconómicos y la distribución del gast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2009).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에서 회계학을 전공한다. 틀랄판에 거주하며 칸쿤(Cancún)과 쿠에르나바카(Cuernavaca)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약 15,000페소 수준의 용돈을 받으며 독일산인 BMW브랜드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에두아르도 바리엔토스 에스코베도는 24살로서 메스티소이며 인테르콘티넨탈 대학에서 관광 학을 전공하며 3개 국어(스페인어, 영어, 포르투갈어)를 구사한다. 현재 틀랄판에 거주하며 쿠에르나바카에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사업가인 아버지에게 7,000페소 가량의 용돈을 받는다. 그는 상류층이지만 아버지께서 용돈을 많이 주시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알게 된 대다수는 중류층이다. 다니엘 에르난데스 레데스마(Daniel Hernandez Ledesma), 빅토르 에르난데스 산도발(Victor Hernandez Sandoval), 아르만도 로페스 베르순사(Armando López Verzunsa)의 가정은 멕시코통계청에서 발표한 기준(최소 1대 이상의 컴퓨터, 냉장고, 차를 보유, 3개월에 1,466페소의 이상의 외식비용 지출, 신용카드 보유, 최소 1명 이상의 가정 구성원이 고등교육을 받은 정규직이며 4인으로 구성)에 적합하며 이들의 사례를 통해 20대 중류층의 여가생활을 서술하고자한다.

다니엘 에르난데스 레데스마는 22살로서 메스티소이며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iversidad Nacional Autónoma de México)에서 기계학을 전공한다.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영어수업을 통해 알게 된 그는 틀랄판에 거주하며 그의 용돈은 약 1000페소 가량이다. 그의 아버지의 직업은 회사원이며 그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빅토르 에르난데스 산도발은 22살로서 메스티소이며 그 역시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에서 기계학을 전공하며, 영어수업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는 에카테펙 데 모렐로스(Ecatepec de Morelos)에 거주하며 약 1,500페소 수준의 용돈을 받는다. 아버지의 직업은 자동차정비원이며 그의 가정역시 아버지의 수입으로 생계를 꾸려간다. 아르만도 로페스 베르순사는 21살로서 메스티소이며 대학입시생이다. 틀랄판에 거주하며 술집에서 알게 됐다. 그의 집은 아버지의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한다. 예전에 그의 아버지는 비자 없이 불법으로 미국을 건너가 잡일을 하며 멕시코로 돈을 보냈으나, 현재는 멕시코에서 유통관련 일을 한다. 그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통해 용돈벌이를 하며 수입은 약 4,000페소 가량이다.

20대 6명을 상류층과 중류층으로 구분 하였으며, 그들과의 만남과 소통을 통하여 친분을 쌓았고 여가시간을 함께 보내며 11개월간의 경험을 토대로 서술했다.

Ⅲ. 중류층의 여가생활

여가생활의 종류 중 하나인 술 문화, 스포츠, 파티(Fiesta), 여행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여 중류층의 여가생활의 모습을 예시와 함께 사진으로 사례를 구성한다.

3.1. 술 문화

젊음의 상징이라고도 불리는 20대들의 만남 속에서 유흥은 빠질 수 없는 존재이다. 유흥이란 '흥겹게 놂.'[11]이라는 뜻을 내포하며 술자리에서 많이 일어난다. 멕시코에서는 술을 마실 때 안주를 곁들여 먹는 것보다는 술만 주로 마시며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이 나오면 장소불문하고 살사(Salsa)와 같은 춤을 춘다. 대다수의 멕시코인 들은 다양한 종류의 술(멕시코의 전통주인 테킬라(Tequila), 메스칼(Mescal), 풀케(pulque)와 칵테일, 위스키, 보드카, 맥주 등)을 즐겨 마시며 피로를 풀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중류층의 여가생활 중 하나인 이러한 문화는 아래의 사례에서 보다 자세히 알 수 있다.

아르만도 로페스 베르순사(21세)
술을 좋아하는 그를 처음 만난 곳은 술집이다. 그는 가격이 저렴한 술집을 자주 다니며, 할인 행사(2*1)를 하는 가게에 날짜를 맞춰 가곤 한다. 보통 병맥주(코로나(Corona)의 가격을 기준)는 25페소이며 생맥주 1000cc는 50페소에 판매한다. 또한 그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가는 클럽은 맥주 한 잔만 주문하면, 마음껏 춤출 수 있으며 다양한 장르의 음악(살사(Salsa), 전자음악(Electronic), 팝(pop) 등)이 나오는 곳이다. 그 곳은 젊은 연령대에 수수한 차림의 사람이 많고, 편한 분위기이며 4명 기준으로 팁 가격을 포함하면 평균 280페소정도 나온다. 그는 술집에서 100페소이상은 절대 소비하지 않으며 자금사정에 따라 술을 마시는데 대부분 술을 참는 경향이다. 그러나 음악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즐비한 술집에서 그는 그 분위기만으로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곤 한다. 그들의 술자리는 더치페이가 확실했으며 다른 친구가 주문한 안주는 먹는 것이 예의이다.

11) 네이버 국어사전.

<그림 1> 일반적인 멕시코 술집

중류층은 술을 마시는 목적보다 함께 즐기는 목적을 위해 집보다는 술집을 찾지만, 반드시 예산에 맞춰 술을 주문한다. 그리고 술값이 저렴한 술집을 찾아다니는데, 술집이 할인 행사를 하는 월요일·수요일 저녁에 주로 술집을 찾는다. 또한 그들은 음식값, 술값, 팁 값 등 모든 비용을 정확하게 더치페이 한다.

3.2. 스포츠

멕시코인 들의 5%가 스포츠 활동을 여가생활로 한다고 대답했을 만큼 스포츠는 그 안에 영향력은 작지만 남성들의 여가활동 비율에서는 높은 부분을 차지한다.[12] 이 스포츠 영역에서는 활동적인 스포츠 이외 텔레비전,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20대 남성 중류층은 축구, 농구, 배구 등과 같은 스포츠를 거주 지역 공터나 근처 부대시설을 즐겨 이용하며 여가생활로 즐긴다.

다니엘 에르난데스 레데스마(22세), 빅토르 에르난데스 산도발(22세)

그들과는 학교, 학과 등이 같고 주말 영어 수업을 같이 수강하여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다. 그들의 학교(UNAM)에서 축구장, 농구장, 탁구장 등의 스포츠시설을 제공한다. 대부분 이러한 부대시설은 무료이며, 학생증을 제시하고 차례를 기다려 순서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근처에는 항상 잔디밭이 있어 그들은 순서를 기다릴 동안 그곳에서 대화를 나누곤 한다. 전문적인 활동보다는 친구들과 어울려 할 놀 거리 중

12) 한눈에 보는 사회, OECD 사회지표(2009).

하나의 개념이다. 또한 스포츠를 직접 하는 활동이외 경기를 보러가기도 하는데 멕시코국립자치대학 올림픽 경기장(Estadio Olímpico Universitario)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국내 축구 리그(푸마(PUMA), 아메리카(AMERICA), 레온(LEON) 등)경기를 관람한다. 자주 가지는 못하며 자신이 좋아하는 팀의 경기가 있을 때, 자금의 여유가 생길 때 주로 가며 가격은 150~300페소이다. 하지만 집이나 술집에서 텔레비전을 통해 경기를 관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2>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탁구장

중류층은 일반적으로 집 혹은 학교 근처 축구장, 야구장, 농구장에서 친구들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곳의 이용료는 무료이며, 예약제이기 때문에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맞게 가야 한다. 그들은 스포츠를 즐길 때 스포츠웨어를 입지 않고, 평소 자신의 복장 그대로 운동을 한다. 스포츠 관람은 자신에게 특별한 경우에 경기장에서 경기를 관람하며, 일반적으로는 집이나 술집에서 텔레비전으로 경기를 시청한다.

3.3. 파티(Fiesta)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만 파티를 하는 것이 대부분 일반적인 우리나라와는 달리 멕시코에서는 특별한 날이 아닐지라도 금요일오후부터는 주말로 생각하며 가족친지 혹은 친구들과 파티를 즐긴다. 일반적이기 때문에 여가생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파티는 그들의 문화에서 빠질 수 없다. 중류층에서 주로 즐기는 파티를 친구들과의 만남과 생일을 사례로 들어 어떠한 모습인지를 제시하고자한다.

다니엘 에르난데스 레데스마(22세)

“나에게 파티는 가족과 친구로 나누어진다. 가족과의 파티는 항상 가족친지와 이루어지며 주로 우리 집에서 타코(taco)를 먹은 뒤, 술과 음악을 곁들여 대화를 하고 춤을 추며 소소하게 보낸다. 정기적으로 잦은 모임이긴 한데, 이것이 왜 파티냐고 묻는다면 일상에서 벗어난 즐거운 만남이기 때문이라고 답한다. 친구들과의 파티의 주제는 ‘죽을 때 까지 술을 마시자’ 이다. 주로 친구네 집이나 그 앞 공터에서 하는데 안주는 감자를 먹는다. 우리는 주로 멜로디언, 피리, 하모니카 기타 등과 같은 악기를 이용해서 파티를 하는데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춘다. 생일파티는 우리 집에서 하는데 10명이하의 친구들을 초대해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생일선물은 따로 받지 않으며 생일을 축하해 주기위해 파티에 참석해주는 것이 선물이다.”

<그림 3> 친구와의 파티

(출처 : Daniel Hernandez Ledesma, Facebook)

<그림 4> 친구와의 파티

(출처 : Daniel Hernandez Ledesma, Facebook)

<그림 5> 생일 파티

<그림 6> 가족과의 파티

중류층의 파티는 주로 공원이나 공터에서 집에 있는 악기를 가지고 와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며 악기를 연주 하는 형태로 행해진다. 음식은 시장에서 사거나 집에서 음식 들고 나와, 공터에서 불을 피워 나눠먹는다. 집에서의 파티는 함께 텔레비전으로 영화보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형태로 행해진다. 집에서의 파티에서도 음식은 직접 조리해 먹는다. 파티 사유로는 친구들과의 친목파티, 친구 혹은 가족의 생일파티, 가족들과의 친목 파티 등이 있는데, 파티에 필요한 술은 대부분 도매마트(코로나(Corona) 1병 8페소, 바카디(Bacardi)1병 100페소)에서 구매한다.

3.4. 여행

소득의 증가는 여가활동으로 이어지기 쉽다. 여가활동 중에서도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여행은 중류층이 즐길 정도는 아니지만, 여행을 다닐 수는 있다. 그들의 여행은 해외여행보다는 국내여행의 경우가 많다. 또한 비행기보다는 기차,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통해 이동 가능한 거리이며, 대부분 가족을 동반한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이를 보여주고자 한다.

아르만도 로페스 베르순사(21세)

아르만도의 어머니는 멕시코 유카탄반도(Península de Yucatán)에 위치한 메리다(Mérida)주 출신이다. 그는 가족과 함께 어렸을 적 외가를 가기위해 어머니의 고향에 방문한 적은 있지만, 그 근처에 있는 칸쿤(Cancún)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 칸쿤은 멕시코의 대표 휴양지 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기에 물가가 비싸 그의 가족과 친척들이 하루만 숙박하게 되어도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다. 아르만도는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멕시코시티에서 1시간 떨어진 쿠에르나바카(Cuernavaca)를 갔다고 했다. 그곳은 바다는 없지만 따뜻한 기후에 많은 멕시코인 들이 휴가로 가는 지역이며 별장들이 많다. 아르만도의 가족 4명이 그곳에 휴가를 떠났을 때 2,000페소로 숙박, 식사를 해결하며 이틀 밤을 보냈다고 한다. 그래도 아르만도는 메리다에서 바다를 본 적 있지만, 다니엘과 빅토르는 멕시코시티에서만 머물렀기에 한 번도 바다를 본 적이 없다.

<그림 7> 쿠에르나바카(Cuernavaca) 여행
(출처 : Armando López Verzunsa, Facebook)

이와 같이 중류층은 보통 국내 여행을 다니며, 해외로 여행을 가기 어렵다. 국내 여행 또한 대중교통과 자가용을 통해 갈 수 있는 거리로 한정된다. 그리고 중류층은 근로시간이 많고, 휴가는 국가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드물기 때문에 긴 시간을 여행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또한 휴가기간은 대부분 성수기이므로 숙박비와 물가가 상승하여, 휴가기간을 집 밖에서 보내기 어렵다. 이에 휴가기간에 여행을 가게 되면,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 경비에 알맞은 숙소와 식사 메뉴를 미리 결정하여 여행을 간다.

Ⅳ. 상류층의 여가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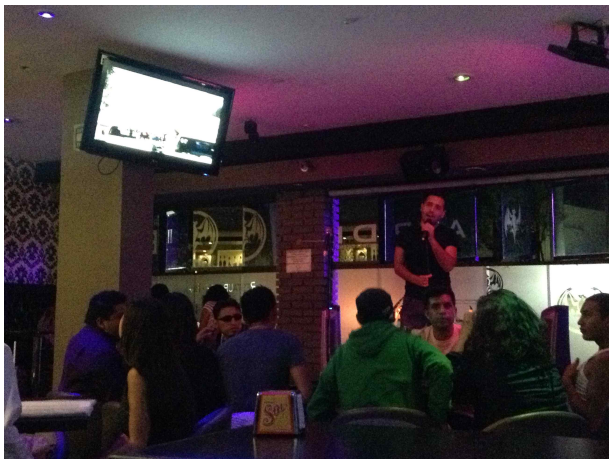
여가생활의 종류 중 하나인 술 문화, 스포츠, 파티(Fiesta), 여행을 하나의 주제로 설정하여 상류층의 여가생활의 모습을 예시와 함께 사진으로 사례를 구성한다.

4.1. 술 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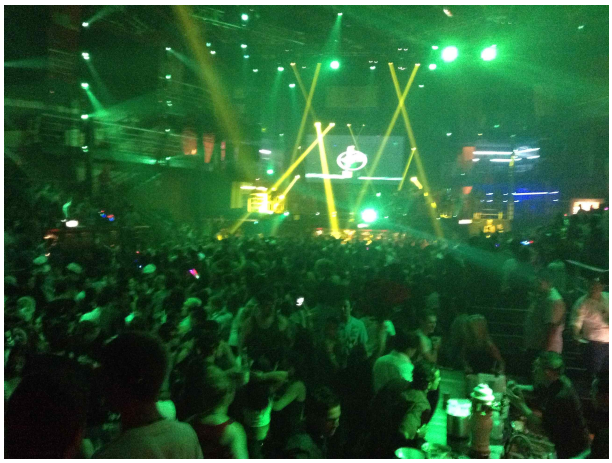
술로 기분을 내기 전 가격부터 생각하고 양을 한정하는 중류층과는 다르게, 상류층은 자금이 여유롭기 때문에 걱정 없이 즐긴다. 그들의 술 문화는 장소와 소비에서 차이가 드러나며 아래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라파엘 만세라(24세)
라파엘과 술자리를 가질 때에는 그의 차를 타고 가라오케(Karaoke)[13], 테이블 댄스, 유명한 클럽과 술집 등 좋은 시설이 갖춰진 장소를 간다. 가라오케와 테이블댄스와 같은 경우에는 5명이면 2,000페소정도 나오며 주로 테킬라(Tequila), 보드카(Vodka)와 맥주를 시킨다. 금요일에 한인촌에 위치한 소나로사(Zonarosa) 근처 클럽을 가곤했는데 그곳은 차가 필수이며, 드레스코드가 정해진 유명한곳이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연인, 친구들, 가족, 사촌 등 주로 5명이상으로 구성된 혼성의 모임이며 대부분 자신의 좌석근처에서 춤을 추며 술을 마신다. 헌팅보다는 유흥을 즐기러 온 것과 같은 느낌이다. 라파엘은 VIP석을 주로 갔으며, 계산은 남자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하기에 그곳 모임에서 혼자 남자인 경우 3000페소가

넘는 가격도 그가 냈으며 다른 남자친구가 있을 경우 절반씩 내곤 한다. 새벽 2시가 넘어 클럽마감시간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집에 가는 길에 타코가게를 들려 야식을 먹은 뒤 편의점에서 박스째 맥주를 사서 친구 마리아나(Mariana)의 집에서 클럽 음악을 틀고 아침까지 즐긴다. 또한 이때의 모든 비용도 라파엘이 지불한다.



<그림 8> 가라오케



<그림 9> 클럽

예산에 맞춰 술을 마시고 술값에 따라 술집을 정하는 중류층과는 달리 상류층은 술값이 싼 술집을 찾지 않고, 최고급 술집 혹은 클럽 등을 찾아다닌다. 그들에게는 술을 먹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자신이 원하면 언제든 술을 즐긴다. 술값과 관계없이 먹고 싶은 술을 주문하며, 술집 또는 클럽 등이 영업을 종료하면 술을 넉넉하게 사서 친구 집이나 자택에서 새벽까지 즐긴다. 즉, 상류층은 술 마시는 것에 돈을 아끼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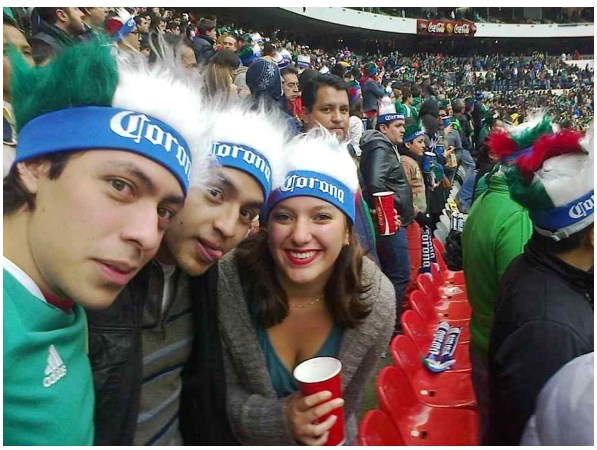
13) 우리나라의 호프집과 비슷하며, DJ에게 곡을 신청하면 차례를 기다려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는 술집.

4.2. 스포츠

개인에 따라 즐기는 여가활동이 다른 것처럼 스포츠에 있어서도 개인적 성격이 드러난다. 중류층에서 볼 수 있었던 일반적으로 즐기는 축구와 탁구 등에 비하면 지금 보여주는 예는 비용이 많이 드는 스포츠 중 하나인 아이스하키로,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만큼 소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사례임을 알 수 있다.

메모 오르테가(24세)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는 아이스링크장이 내부시설로 갖추어져 있고, 학교소속 아이스하키 팀이 있다. 그는 그 팀의 소속으로 취미 겸 전문적인 아이스하키를 한다. 그 팀은 캐나다의 한 대학소속 아이스하키 팀에서 원정을 올 정도의 실력을 갖췄다. 그는 개인장비와 활동비를 사비로 지불하며 그것을 즐긴다. 그 외 집 근처에 위치한 헬스장에서 몸매를 가꾼다. 그 헬스장은 샤워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지하부터 3층까지 총 4층으로 구성되어있고 한 달 1,000페소, 6개월에 4,000페소이다. 그도 멕시코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축구를 좋아하는데, 경기장에서도 주로 경기를 보곤 했다. 멕시코 최대 규모이자 세계 5위의 규모를 자랑하는 아스테카 경기장(Estadio Azteca)에서 이루어지는 나라별 친선경기는 자리에 따라 300페소에서 1000페소정도 한다. 멕시코와 이스라엘의 경기를 보러갔을 때 경기장 앞에서 500페소에 암표를 구매한 뒤, 경기장안에서 500cc에 65페소에 판매하는 맥주를 마신다.



<그림 10> 아스테카 경기장(Estadio Azteca)에서 축구관람

<그림 11> 술집에서 축구관람

<그림 12> 아이스하키 경기

(출처 :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스포츠, http://www.deportes.unam.mx)

<그림 13> 인테르콘티넨탈 아이스하키 경기장

(출처 : PLANETA TLALPAN, http://planetatlalpan.mx)

아이스하키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스포츠로 여겨지는 것처럼 멕시코에서도 많은 지출이 요구되는 스포츠 중 하나다. 상류층은 중류층이 일반적으로 즐기는 스포츠 이외에도 특별한 종목의 스포츠를 즐긴다. 또한 그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스포츠의 팀이나 중요한 경기는 항상 경기장에서 관람하며 관람 비용은 고려하지 않으며, 경기장 안에서 파는 값 비싼 음식을 원하는 만큼 구매한다.

4.3. 파티(Fiesta)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파티의 분위기는 화려함이 묻어나 있다. 중류층의 파티가 소소하다면 상류층이 즐기는 파티에서는 크기와 분위기 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티와 가깝다. 에두아르도의 생일파티에 참석했을 때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에두아르도 바리엔토스 에스코베도(24세)

그의 생일날 초대를 받아 간적이 있다. 그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는 100명에 가까운 손님들이 왔으며, 그 인원을 충당할 수 있을 크기의 정원이 있다. 그의 파티는 클럽처럼 조명과 기계를 설치했고 DJ를 섭외했으며, 가정부 2명이 손님을 위한 음식을 서빙과 정리정돈을 하면서 필요한 것에 도움을 주었다. 지인들은 대부분 인테르콘티넨탈 대학교의 학생들이거나, 좋은 학벌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러한 생일파티 분위기는 초대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 아는 지인이 아니기에, 춤을 함께 추며 술을 마시고 대화하면서 알아가는 과정이 있다. 세대 간의 차이에 대한 감각이 덜한 멕시코의 파티에서 그의 부모님역시 끝날 때까지 함께 시간을 보냈다. 생일 선물은 따로 준비하지 않고 지인들이 각자 마실 술, 음료, 일회용품, 얼음 등을 가지고 그의 파티에 참석하여 축하하는 것에 의의를 두었다. 생일파티 이외에도 그의 가족은 술과 함께 중요한 스포츠경기를 텔레비전으로 관람하거나, 친목도모를 위해 평소에도 친지들과 함께 잦은 파티를 가지곤 한다.

<그림 14> 에두아르도 생일파티

<그림 15> 친구와의 파티

<그림 16> 가족과의 파티

(출처 : Eduardo Barrientos Escobedo, Facebook)

상류층의 파티는 100명에 가까운 지인들을 초대하여, 20대의 유흥문화와 비슷한 클럽의 분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사용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파티의 규모와 참석자의 수를 고려하지 않고 매우 화려하게 파티를 즐긴다. 파티에 초대된 지인들도 그러한 파티문화에 익숙하며, 그들의 파티는 밤늦은 시간에 열리기 때문에 저녁 식사는 준비하지 않지만, 참석자 수에 맞는 간식을 준비 한다.

4.4. 여행

시간의 여유가 된다면 거리와 비용에 상관없이 국내외 유명한 휴양지와 관광지를 여행한다. 상류층의 기준 중 하나인 별장 소유는 여행을 더 편하게 갈 수 있는 환경이며, 별장에서의 휴가는 그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휴식이며 여가이다. 별장의 위치는 주로 해변이 있는 지역이며, 내부에 수영장과 정원이 포함되어있다. 국내여행 할 때에는 주로 친구의 별장이나 호텔에서 묵으며, 계획을 통해 해외여행을 가기도 한다.

메모 오르테가(24세)
그는 방학기간이나 휴식이 필요 할 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칸쿤(Cancún)에 위치한 그의 집 소유인 별장을 간다. 멕시코시티에서 칸쿤까지 자가용을 이용하면 24시간이 넘게 소요되므로 비행기를 이용하는데, 1인당 편도 비행기 비용은 평균 2,000페소이다. 집 앞 해변과 집 내부의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고, 바비큐파티를 하면서 시간과 비용걱정 없이 휴가를 보낸다. 멕시코시티와 1시간 떨어진 쿠에르나바카(Cuernavaca)에도 별장을 소유한 그는 자신의 자가용을 이용하여, 그곳에서 평일과 주말에 따사로운 햇빛과 함께 수영을 하면서 여유를 즐긴다. 별장에서의 휴식이외에, 그는 주로 국내 대표적 휴양지 칸쿤, 아카풀코(Acapulco), 푸에르토 바야르타(Puerto Vallarta) 등으로 국내 여행을 다니며, 북미에 위치한 미국과 캐나다, 중남미, 유럽 등으로 해외여행을 간다. 해외여행을 할 때에 편도 비행기 가격은 평균적으로 계산했을 때 캐나다의 경우 4,000페소, 미국 2,500페소, 유럽 8,000페소이다. 메모는 멕시코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인 미국으로 주로 해외여행을 갔으며,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 위치한 로스앤젤레스(Los Angeles),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에서 쇼핑하는 것을 즐긴다. 그가 열흘 동안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 머물렀을 때 20,000페소가 사용되었다.

<그림 17> 칸쿤(Cancún) 여행
(출처 : Memo Ortega, Facebook)

<그림 18>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여행
(출처 : Memo Ortega, Facebook)

여행은 비용이 많이 요구되는 여가활동 중 하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류층은 중류층과는 달리 교통비, 식비, 숙박비, 그리고 유흥비 등 어떤 비용도 고려하지 않고 국내·외에서 여가를 즐긴다. 상류층은 보통 국내여행은 친구들과의 친목도모, 해외여행은 새로운 문화에 대한 경험과 쇼핑을 목적으로 한다. 여유가 넘친다.

Ⅴ. 결 론

소스타인 베블런(Thorstein Veblen)의 유명한 논문인 Theory of the Leisure Class (유한계급론)은 경제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과시적 여가(시간과 노력의 낭비)와 과시적 소비(재화의 낭비)를 특징으로 한다. 부자들이 온 세상에 '나는 일을 하지 않아(돈을 벌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다.'를 보여주며, 여가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멕시코의 20대 중류층과 상류층에서의 여가모습은 상이한 모습을 보여준다.

필자는 중류층과 상류층을 비교하기 위해 그들의 주요 여가활동인 술 문화, 스포츠, 파티, 여행 등을 연구하였다. 비교연구 결과 그들의 여가생활에서의 소비와 지출 형태는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그들의 소비문화는 본론에서 서술했듯이 중류층은 예산과 계획 내에서 음주를 하며, 스포츠는 무료이용 이외에는 운동할 장소가 매우 제한적이며 경기 관람은 보통 텔레비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파티는 소수의 지인 혹은 가족과 협소한 장소에서 스스로가 준비한 음식과 악기, 술 등으로 행해진다. 여행 또한 자신의 예산 경비에 맞추어 계획된 국내 여행이 대부분이며 긴 시간을 여행에 투자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류층은 음주, 스포츠, 파티, 여행 등 어떤 여가활동에도 자신의 지출에 대해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만큼 최고급으로 소비한다.

이처럼 중류층과 상류층 간에 여가활동의 지출과 소비형태가 매우 다르다. 이에 소득만으로 계층을 분류하는 방식보다 중·상류층의 지출과 소비 형태를 고려하여 계층을 분류하는 것도 효과적일 것이라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인터뷰 대상자

다니엘 에르난데스 레데스마(Daniel Hernandez Ledesma, 22세, 男, 인터뷰날짜: 2014.11.11.)
빅토르 에르난데스 산도발(Victor Hernandez Sandoval, 22세, 男, 인터뷰날짜: 2014.11.11.)
아르만도 로페스 베르순사(Armando López Verzunsa, 21세, 男, 인터뷰날짜: 2014.11.09.)
에두아르도 바리엔토스 에스코베도(Eduardo Barrientos Escobedo, 24세, 男, 인터뷰날짜: 2014.11.14.)
라파엘 만세라(Rafael Mansera, 24세, 男, 인터뷰날짜: 2014.11.14.)
메모 오르테가(Memo Ortega, 24세, 男, 인터뷰날짜: 2014.11.08.)

참고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네이버 국어사전.
한눈에 보는 사회, OECD 사회지표(2009).
Los Niveles Socioeconómicos y la distribución del gasto, Instituto de Investigaciones Sociales(2009).
Distribución de Niveles Socio-económicos en el México Urbano, AMAI(2005).

인터넷자료

멕시코 통계청 (http://www.inegi.gob.mx)
주멕시코대사관 (http://mex.mofa.go.kr)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 스포츠 (http://www.deportes.unam.mx)
Armando López Verzunsa, (https://www.facebook.com)
Daniel Hernandez Ledesma, (https://www.facebook.com)
Eduardo Barrientos Escobedo, (https://www.facebook.com)
Memo Ortega, (https://www.facebook.com)
PLANETA TLALPAN (http://planetatlalpan.mx)

부 록

Tabla 4 Ingreso familiar por NSE

	Mínimo	Máximo
A/B	$ 85,000.00 +	
C+	$ 35,000.00	$ 84,999.00
C	$ 11,600.00	$ 34,999.00
D+	$ 6,800.00	$ 11,599.00
D	$ 2,700.00	$ 6,799.00
E	$ 0.00	$ 2,699.00

계층별 소득.

(출처 : Distribución de Niveles Socio-económicos en el México Urbano, AMAI(2005))

Tabla 7 Distribución porcentual del gasto por nivel AMAI. Encuesta nacional del ingreso y gastos 2004

	A/B	C+	C	D+	D	E
Alimentos y bebidas consumidas dentro del hogar	7.3%	12.0%	17.6%	24.4%	29.7%	33.5%
Alimentos y bebidas consumidas fuera del hogar	7.6%	7.8%	7.5%	8.4%	8.5%	9.9%
Tabaco	0.1%	0.2%	0.2%	0.3%	0.3%	0.4%
Vestido y calzado	3.7%	4.2%	4.5%	4.7%	4.6%	4.3%
Servicios del hogar (gas,agua,electricidad)	5.8%	6.9%	7.7%	9.6%	9.7%	8.7%
Limpieza y cuidado de la casa	5.3%	3.4%	2.6%	2.9%	2.9%	3.1%
Enseres domésticos	1.4%	1.5%	1.6%	1.5%	1.6%	1.3%
Cuidados medicos y conservación de la salud	2.9%	3.0%	2.5%	3.0%	2.2%	3.1%
Transporte público	0.6%	1.7%	4.2%	6.9%	8.3%	8.3%
Transporte foráneo	1.3%	0.9%	0.7%	0.7%	0.6%	0.6%
Vehículos	8.1%	9.8%	8.8%	4.1%	3.0%	1.3%
Comunicación	3.4%	4.1%	4.3%	4.2%	3.2%	2.0%
Educación	9.9%	9.0%	8.1%	6.4%	5.8%	5.1%
Esparcimiento	6.4%	5.3%	4.5%	3.3%	2.7%	2.1%
Cuidado personal	2.5%	3.2%	3.9%	4.6%	5.0%	5.1%
Accesorios y efectos personales	0.2%	0.2%	0.2%	0.1%	0.1%	0.1%
Otros gastos diversos	6.7%	5.7%	5.2%	4.1%	3.6%	4.1%
Cuota vivienda	1.0%	1.4%	1.4%	1.1%	0.6%	0.3%
Mantenimiento y reparación vivienda	1.1%	1.6%	1.2%	0.9%	1.0%	1.2%
Depósitos bancarios/ tandas	11.6%	10.1%	7.3%	5.7%	4.3%	3.4%
Préstamos	0.5%	0.3%	0.2%	0.2%	0.2%	0.2%
Pagos tarjetas y casas comerciales	6.5%	4.6%	2.1%	1.0%	0.3%	0.1%
Deudas	1.0%	1.3%	1.4%	0.9%	0.9%	0.8%
Compra de casa, condominio o terrenos	2.3%	0.7%	0.8%	0.4%	0.4%	0.6%
Otras erogaciones	2.9%	0.9%	1.6%	0.5%	0.5%	0.4%

AMAI에서 정한 단계를 통한 지출의 비율 분배.

(출처 : Distribución de Niveles Socio-económicos en el México Urbano, AMAI(2005))